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비 반영 힘 모은다

광주·대구시·경유지 지자체장 등 국회포럼서 공동건의문 채택 수도권 경제구조 탈피·영호남 중심 경제권 기틀 마련 기대

광주시와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들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내년 국비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3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을 열고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경유지 지자체장, 김경진·박주산·주호영·이개호 등 영·호남 경유지 국회의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영·호남 국회의원들도 “달빛내륙철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 경유지 지자체장들은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국책사업

반영 ▲지역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6조원 이상을 투입해 양 도시 간 191km 구간을 고속철도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했고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됐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달빛내륙철도 건설추진협의회’와 올해 3월 ‘달빛

철도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꾸리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모으고 지난 6월부터는 자체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협조를 요청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대구시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이 3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광역시 시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권영진 대구광역시 시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경유지 지자체장, 경유지 국회의원 및 전문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화 ‘명량’ 특수효과팀 421년전 명량해전 재현한다

명량대첩축제로 전투장면·수중폭파 등 특수효과 강화

영화 ‘명량’ 특수효과팀이 명량대첩축제로 421년전 명량해전을 재현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2018 명량대첩 축제’가 오는 7~9일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관광지 일원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기적의 승리’ 명량대첩, 충무공 이순신, 전남 지역민의 호국·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올해는 축제의 백미인 명량해전 재현 행사에 박진감을 더해넣으려고 영화 ‘명량’의 특수효과팀이 합류했다.

초탐선 TNT 폭파, 실제적·입체적으로 연출하는 해상 및 육상 전투선, 워터캐논,

수중 폭파 등 특수효과를 강화해 생동감 있는 명량해전을 재현한다.

해남·진도 주민이 참여하는 출정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해남 군민의 풍물놀이, 진도 군민의 북놀이, 공군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이 펼쳐진다. 해군 제3함대가 참여하는 해상 퍼레이드, 해군 군함 탑승체험 등은 볼거리를 더한다.

축제의 의미와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고 한·중·일 평화로운 현재와 미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도 선보인다.

야간 볼거리와 축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미디어퍼포먼스, OST 가요제, 강강술래 BAM(밤)&망금산 레이져쇼, 조선 이

순신 무에 연무대회, 조선수군캠프, 명량캠핑존 등은 과거와 미래,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관광객들의 체류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수군 재건로 걷기, 스탬프ラリー, 조선시대 의상 및 수군복식 체험, 충무공 활쏘기, 어록쓰기, 울돌목 물살체험, 판옥선 카드 타기 등 역사 체험 부스와 진돗개, 명랑키즈랜드, 핸드메이드, 100원 오락실 등 추억과 감성이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장은 “명량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다양한 공연도 즐기면서 역사와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축제”며 “초가를 추억과 감동을 함께 얻는 날들이기 될 것”이라고 추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몽골 지방정부 농축산 기술 교류 논의

전남도가 몽골 지방정부를 시작으로 유라시아(Eurasia)지역과의 교류에 시동을 걸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기술원 등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류협력단은 최근 몽골을 방문해 튜브, 불간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났다.

양 측은 가축 품종 향상, 사료 작물-체소 재배, 육류 가공 기술 등과 관련한 인적·기술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촌진흥청 몽골사무소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전남의 농축산 기술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등 세부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몽골 대표단의 전남 방문 등 두 지역 상생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기공식...2020년 개관

옛 광양역사 부지서

예향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전남의 미술문화를 견인할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공사가 시작했다.

전남도는 3일 광양 옛 광양역사 부지에서 도립미술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10월 개관 예정인 도립미술관은 총 사업비 4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 1580㎡에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도립미술관에는 전시·수장 공간, 사무·교육 공간, 시설운영 공간, 어린이 체험실, 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전남만의 고유한 예술과 철학이 담긴 도립 미술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전남의 역사와 문화예술 가치 등을 느낄 수 있는 도민 문화 향유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기공식에서 “미술관이 차질 없이 지어지도록 도민과 지역 작가, 미술관 관계자, 문화 발전에 애쓰는 모든 분의 꾸준한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며 “특히 전남 문화예술의 보고(寶庫)를 세운다는 자부심으로 미술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인공지능 활용 청년 일자리 해결

10월 23일 일자리 박람회서 지자체 최초 탑재칭시스템

광주시가 청년일자리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탑재칭시스템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10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 주최하고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광주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역강소기업에 비해 대학생 등 구직자 4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5일 조선대 국제관 2층 역량개발실에서 박람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7일까지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선보일 인공지능 탑재칭시스템은 인공지능이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역량검사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다.

즉 구직자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역량을 가장 적합한 직무를 찾아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AI기반 온라인 면접’을 실시하고 구인기업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시스템에 등록해 놓으면 최종적으로 인공지능이 최적의 매칭결과를 구직자와 기업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 탑재칭시스템이 구축되면 면접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구직자에게는 일자리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은 스펙위주의 선발이 아닌 과학적인 블라인드 채용 성과를 낼 수 있는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혁신하는 자만 생존...기존 제도·시스템 고집맨 몰락”

이용섭 광주시장 공직자 특강

“이제는 혁신하는 자만 생존하는 시대다. 기존의 가치, 제도, 시스템, 관행을 고집하면 모두가 몰락한다.”

참여정부 시절 첫 혁신관리수석을 지냈던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광주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특강했다.

광주시 혁신에 나선 이 시장이 먼저 자신의 시정 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 매달 혁신·소통·정령을 주제로 강사를 섭외해 공직자 혁신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민선 7기 기치로 ‘혁신·소통·정령’을

내건 이 시장은 50여분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의 정의, 필요성, 방법 등을 직원들에게 풀어냈다.

이 시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화엄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혁신은 폐기학습에서 시작하는 일종의 창조적 파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에서 비로소 혁신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다움의 발굴 ▲변화 관리 ▲성공의 뒷에 탈출 ▲문제 의식과 문제해결 능력 제고 ▲어렵고 힘든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등을 광주혁신 5대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3D OCT와 레이저를 통한 수술의 정확도와 안정성, 성공률을 보장하는 신개념 최첨단 수술 시스템)
-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팬옵티스, 리사트리, 심포니, 테크니스, 파인비전 등)
-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GPS방식으로 측정·분석)
-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 1 DAY 노안수술 가능
-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

1566-9988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